



LA사랑의교회

LA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김기섭 / Sr. Pastor, Kisup Kim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제목



LA SARANG COMMUNITY CHURCH

www.Lasarang.com



성령 초청 찬송

- 182장_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통일169)
- 183장_ 빈 들에 마른 풀같이 (통일 172)
- 184장_ 불길 같은 주 성령 (통일 173)
- 190장_ 성령이여 강림하사 (통일 177)
- 197장_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통일 178)

예수님의 고난묵상 찬송

- 143장_ 웬말인가 날 위하여 (통일141)
- 144장_ 예수 나를 위하여 (통일144)
- 149장_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통일 147)
- 150장_ 갈보리산 위에 (통일 135)
- 151장_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통일 138)

속죄와 죄사함의 찬송

- 250장_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통일 182)
- 252장_ 나의 죄를 씻기는 (통일184)
- 254장_ 내 주의 보혈은 (통일186)



- 255장_ 너희 죄 흉악하나 (통일 187)
- 257장_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통일189)
- 258장_ 샘물과 같은 보혈은 (통일190)
- 259장_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일 193)
- 260장_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통일 194)
- 261장_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통일195)
- 263장_ 이 세상 험하고 (통일 197)
- 264장_ 정결하게 하는 샘이 (통일198)
- 265장_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일199)
- 266장_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통일 200)
- 267장_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통일201)
- 268장_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일202)
- 269장_ 그 참혹한 십자가에 (통일 211)
- 270장_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통일214)
- 272장_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통일330)
- 273장_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통일331)
- 274장_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통일 332)
- 275장_ 날마나 주와 멀어져 (통일 333)
- 277장_ 양떼를 떠나서 (통일 335)
- 278장_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통일 336)
- 279장_ 인애하신 구세주여 (통일 337)
- 280장_ 천부여 의지 없어서 (통일 338)




보혈 기도

-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하나님과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길 힘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부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원수 마귀 대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타락한 마음과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이 열정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성에 오염된 내 마음이 악한 양심이나 사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영과 세상 풍조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의 마음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쭐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새 영을 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뼈들은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며 내 관절들은 사랑의 기름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내 뼈들은 살아나고 내 뼈들은 치유될 것이며 더 견고해 지고 더 튼튼해 질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대한 사탄의 모든 계획은 무효가 되고 소멸될 것이며 나를 해할 마법이나 점술은 더는 없을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실인의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서 자랄 것이며 그것은 사랑과 품위의 머리카락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머리는 나를 둘러싼 모든 원수 위에 들리어지고 나의 뿔은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며, 신랑 예수님의 투구를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내 얼굴의 모든 우울한 표정, 어둠, 내 얼굴에 드리워진 모든 원수의 억압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눌렸던 흔적들은 사라지고, 영적 아버지의 얼굴같이 존귀함으로 높아지며, 은혜로움으로 빛나고, 온유함으로 예의 바른 얼굴이 되어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 뱃음을 당해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무너뜨려 지고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과 사랑이 결핍된 생각들, 겸손과 평강이 결핍된 생각들, 실패와 좌절의 생각들, 미움과 적의, 오만과 교만, 두렵고 불안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폐하여지고, 믿음과 사랑의 생각, 겸손과 평강의 생각들이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무법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폐지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나는 이러한 것들만 생각할 것을 선포합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헛된 공상들과 헛된 생각들은 자제되고, 내 생각들은 새로워지며 생각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 그리스도의 생각과 성령의 빛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속임과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보았던 내 눈의 비늘들은 벗겨지고, 성한 눈, 교만하지 않은 눈, 바른 눈,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 주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되며, 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진리를 보고 진리에 대한 순종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쓴 뿌리와 독, 화와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합당하지 못한 희롱의 말과 무익한 말은 내 입에서 멀어지고, 내 입은 모든 악독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혀에 성령의 굴레를 씌워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며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을 할 것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과 속박은 풀어지고, 이기적인 야망과 편견은 제거되며,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상처들은 치유되고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은 잔인하지 않고 긍휼과 친절, 겸손, 오래 참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나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하며, 나의 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늘 관심을 두고 돌볼 것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죄가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몸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몸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정결케 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모든 연약함, 질병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내 안에 더는 머물지 못하며 내 몸에 어떤 권한도 행세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전인 내 육체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악한 것들은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 내가 거하는 곳, 나의 소유물, 나의 교통수단과 오고 가는 나의 모든 여정, 내가 나누는 대화와 모든 관계는 성령의 울타리로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장막 터를 넓히시고, 줄을 길게 하시며 말뚝을 강하게 하시고 좌우로 확장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내 장막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장막 구석구석을 뿌려 정결케 되고 성화 되었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 그리고 어떤 악한 영들도 내 장막 안에 더는 머물지 못하며 어떤 권한도 행세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장막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것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 예수님의 보혈이 늘 나와 동행하시므로 나의 걸음은 어디서나 안전할 것이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지키시므로 메뚜기떼가 내 소산을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나의 생업을 지키심으로, 원수들이 나의 곡식을 그들의 양식으로 먹지 못할 것이며, 수고로이 얻은 땅의 모든 소산이 보호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 나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엡 6:10 ~)

•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허공을 치는 기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악한 영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악한 영들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 나의 허리를 동여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허리에 동여매고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주께 드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문제는 주인의 몫이기에, 주인 노릇하던 내 인생의 신발을 벗고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셔서,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복음이 주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붙잡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 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만 이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주권을 믿고 악한 영들의 불화살들을 능히 막아내게 하옵소서.



• 구원의 투구를 쓰기 원합니다. 생각이 보호되어야 하겠사오니 생각의 문에 십자가를 세워 주시고 생각의 문설주마다 주의 보혈을 뿌려 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신, 더러운 것들이 조금도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주를 향한 기대가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주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속이는 영들을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고 미혹의 영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몸과 마음, 생각, 감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걸음걸음을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1:18)

•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영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정신과 영에 붙어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은혜의 대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막힘없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LA 사랑의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줄기로 강단의 말씀 선포가 "제단"을 통해 온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령의 불을 제단에 내려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늘 있게 하옵소서.



- LA사랑의교회 거룩한 제단 위에 성령의 불과 기도의 은사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강단을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모두가 (담임목사님, 사역자들, 장로님들, 순장, 순모님들, 다락방, 사역원, 각 부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헌신된 300여 명의 중보자를 세워 주옵소서.

- LA사랑의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주님의 눈물과 아비의 가슴을 가진 '믿음의 중보기도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저들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와 생명을 잃어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엎드리게 하옵소서.

• LA사랑의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예군사로 세워가는 제자훈련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 LA사랑의교회가 4500여 이민 교회와 이민 사회를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뿐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와 다음세대를 향한 역사적 틈새를 감당하여 주님의 재임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죄악도 용납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 새 시대의 비전을 심어 주옵소서. 목자의 가슴과 아비의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겸손의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깊은 말씀의 우물에서 퍼 올린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담임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늘 주장하셔서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내면이 늘 주님 앞에서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갖게 하셔서 민감하게 깨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사모님에게 부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하옵시고 허락하신 세 자녀에게 견고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온전히 붙잡혀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들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부어 주시고,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한결같은 충성과



인내, 최선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사모님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사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읽는 지혜와 통찰력,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향한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영으로 무장하여 담임목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시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 순장, 순모님들에게 말씀의 영, 지혜의 영, 섬김의 영을 물 붓듯 부으셔서 다락방과 맡겨진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영혼을 세우는 일이 사람의 지혜나 경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무릎의 간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지혜, 보혈의 권세로 무장하여 섬기는 순장, 순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장, 순모님들의 영적, 인격적, 품성적 그릇을 날마다 확장해 주셔서 주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게 하옵시고, 다락방마다 작은 천국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마다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모든 청지기를 축복하시고,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어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충성스러운 종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 받으며,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 우리 가정에 언약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죄악이 넘치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참된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밖에 없사오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믿음이 생명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맑고 깨끗한 영을 부으셔서 늘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걸음에 동행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막아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증거가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인생의 낭비가 조금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셔서 악한 만남이나 유익하지 않은 만남은 막아주시고, 복된 만남들로 채워 주옵소서. 좋은 책,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등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만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를 보고 느끼고 사로잡히게 하옵시고, 어릴 때부터 영적 분별력과 민감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목마른 가슴으로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옵시고, 인격, 품성, 꿈과 비전의 영역에서 세상의 자녀들을 압도하는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자신을 통하여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어릴 때부터 자신을 신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 차세대 사역원 (영아부,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EM, 대학청년부, 사랑토요한글학교)에 속한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역사관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세상을 품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MTS (목회자 훈련 학교)

•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때, 준비된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여건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역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감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자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 주옵소서.



• 이 사역(MTS - 목회자 훈련 학교)을 학위 과정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50만 불의 설립자금을 주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 드립니다.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목회자들을 키우는 이 사역에 온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먼저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특히 성도들의 생업에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으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이 사역에 헌신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설립자로 쓰임 받는 영광을 갖게 하옵소서.

• MTS 전체 프로그램 담당 사역자와 행정을 섬길 준비된 사역자를 만나게 하시며, 필요한 훈련 과정마다 최고의 강사진을 보내주셔서 개인 영성과 현장 영성, 미래 교회사역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머물 남녀기숙사를 허락하셔서 숙식을 걱정하지 않고 목회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 미주지역뿐 아니라 중남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젊은 목회 후보생들을 보내 주셔서, MTS 훈련 후에 미주와 열방, 세계방방곡곡에서 이들을 통해 각 지역의 교회와 캠퍼스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 MTS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성품, 말씀의 능력과 지혜, 깊은 기도의 영성, 복음으로 영혼을 얻는 전도자의 능력과 열심을 주시고, 무엇보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자신이 섬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는 능력 있는 종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사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포용할 수 있는 목자의 가슴, 아비의 눈물을 주옵시며,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의 틀에 제한받지 않도록 열린 사고(Open Mind)와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는 마음(Teachable Heart)을 부어 주셔서 평생을 한결같이 자라가고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겸손한 주의 종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 MTS 과정을 통하여 UCLA와 USC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와 미주의 각 대학교, 더 나아가 전 세계 주요 대학 캠퍼스를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4,500여 이민교회의 주일학교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학교 프로젝트

- 차세대 신앙계승은 부모 세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학교 사역에 대한 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프로젝트”가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실제화되도록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을 풍성하게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과 뜻이 곧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우리 자녀들을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로 준비시키는 일은 기도의 무릎을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기에, 먼저 이 일에 무릎으로 헌신할 기도의 300용사들을 준비시키셔서 학교 사역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든든한 기반 위에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을 키울 학교의 위치, 넉넉한 땅과 충분한 공간을 가진 건물 등 필요한 인프라를 허락해 주시되, 이곳은 세상의 랜드마크가 아닌 믿음의 돌탑,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 LA 지역과 미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영적 돌파구가 될 성령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경험과 실력, 탁월한 영성을 갖춘 교장 선생님과 커리큘럼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신앙과 성품, 언어, 역사, 인문, 과학과 수학, 예체능 등 각 과목을 담당할 준비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기업과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계승과 각 분야의 일꾼들을 훈련하는 사역에 영광스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 학교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깊은 신앙과 높은 비전,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 전문적인 실력과 균형 잡힌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과 이 땅의 역사, 세계사를 바꿀만한 일꾼들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위해 중보하는 거룩한 파수꾼으로서 제2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자기 시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Korean-American을 뛰어넘어 Kingdom Children으로서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아 역사의 틈새를 메꾸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 학교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영적, 육적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문화와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일당백, 일당 천의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어, 정치, 경제, 문화, 예체능, 법조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세계의 선교 전략 지역에 그 지역 선교센터 역할을 하게 될 보딩스쿨(기숙학교)을 세우게 하셔서 이 학교들을 통해서 그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킬 미래 지도자들을 신앙으로 양성하게 하시며, 그 지역 선교사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학업을 담당하여 선교사님들이 자녀교육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선교에 전념하도록 돕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미국교회의 각성과 영적 부흥, 미국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미혹의 영을 결박하시고, 거짓과 속임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 이 시대를 혼미케 하는 동성애의 영과 낙태의 영 등 모든 악한 영들을 묶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복된 믿음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 성령의 강력한 각성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과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보혈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를 믿고, 먼저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이 시대의 영을 두려워하여 패배의식이 나 죄절감에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의 선두에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중보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연방의원, 주 의원,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판검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원선거, 가주의원선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과 공의대로 다스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문화계, 예술계 등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과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리더로 세워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국과 북한, 세계선교를 위해서

-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이념 대립과 사회 문제, 경제적 양극화, 음란 문화와 범죄, 환경파괴 등 우리 민족의 가득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히시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공의가 실행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모든 정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국가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결과 순결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영적, 도덕적 주권을 회복하여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시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섬김의 본이 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교회, 일터, 학교마다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거룩한 선교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옵소서.

• 한국에 와 있는 200만 이주노동자들을 내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작은 천국을 경험케 하시어, 저들이 돌아가 자기 민족과 국가의 영적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들이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악용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주옵소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의약품이 계속 공급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인신매매와 인권 탈취가 중단되게 하시고, 고된 노역과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20만 정치범 수용소(10만 기독교인)가 사라지고, 탈북자 척결정책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지하 교회 성도들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을 농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 영적 희년이 도래하는 그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 이념과 사상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셔서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자유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통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재난과 난민 발생 시에 피 흘림이 없게 하시며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만이 있게 하옵소서.

•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통일의 날을 기대하며, 북한의 480만 가정에 성경 보급이 이루어지고, 450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핍박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북한의 13개 도시와 4,781개 마을에 복음전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 (특별히 이슬람 지역)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미혹의 영을 주께서 묶어 주시고 멸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어 저들이 서 있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깨닫고, 내가 가던지 아니면 기도와 물질로 보내던지 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

-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주셨는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옵소서.

-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 관계로 인하여 나의 감정과 정서가 요동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각자 개인의 고민, 문제, 더 나아가 꿈과 소원을 올려 드립니다.)



-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합니다.



- 자녀들을 위한 구체적 소원을 올려 드립니다.



- 직장과 생업을 향한 꿈과 기대, 그리고 서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 신분 문제 해결과 치유 (건강의 회복과 마음, 감정, 쓴 뿌리의 해소)



- 다락방 기도 (다락방 순장 순모님과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께 올려 드리는 부족한 종의 일천번제와 모든 성도의 일천번제를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며,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 유다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부림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 시대의 불신문화 속에서 우리가 올려 드리는 일천번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설레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시고, 영광스런 재림을 준비하시는 존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 점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 점검표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 점검표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 점검표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 점검표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 점검표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기도 점검표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기도를 마칠 때마다 1회씩 표해 주시고 일천번제 기도를 마치신 분은 이 기도집을 교회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교인번호.

다락방.

Cell.

E-Mail.

The Kneel Down Prayer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무릎의 헌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Mark 9:23, 29)

